

# 페레스트로이카의 현황과 전망

장 원 석\*

## — 목 차 —

1. 서 론
2.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성격
3. 페레스트로이카의 성패전망
4. 페레스트로이카와 남북관계

## I. 서 론

고르바초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는 영어의 'restructure'에 해당하는 말로서 소비에트 체제의 전반적 개혁과 재편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종래의 개혁정책과는 달리 기존체제의 근본질서에 대해서 메스틀 가함으로써 혁명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가 스스로 체제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떠맡았다는 점에서 가히 위로부터의 혁명이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한 소비에트체제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있는 세계사로 하여금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그 변화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전통적인 소비에트 체제의 비능률과 이념적 낙후는 경제적 침체와 비민주적 사회질서를 초래하였으며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 고르바초프에 의해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점차 다수 국민에 의하여 추진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고르바초프 개인의 역할이 과소평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역사의 필연이며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개혁의 시도는 누구도 거부할 수

\* 濟州大 敎授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되었다.

문체제기와 진단은 곧 처방으로 이어졌다. 경제적 침체와 비민주적 사회질서의 주요원인이 중앙통제경제의 폐해와 공산당의 관료주의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처방들이 계속적으로 강구되었으며 급기야 상황은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변질을 경고하는 위험수위에 이르게 되었다.

경제개혁과 민주화를 페레스트로이카가 추구하는 두개의 중요한 목표이자 실질적 내용이 라 할 때 이를 위하여 취해진 파격적인 조치들을 살펴보면, 전자와 관련하여 소련은 본격적인 시장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경제가 사회주의와 양립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소련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원리들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행하고 있으며 - 개인노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물질적 동기부여, 기업의 자주적 권한과 책임의 확대 등 - 그러한 시도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공산당의 지위와 역할을 부정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당정분리원칙에 입각한 정부주도하의 국정운영은 당의 권한을 약화시켰으며 당관료제급의 특권폐지는 물론 당의 지도적 역할, 당의 운영원리로서 민주집중제의 원칙 등이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되었다. 새로운 선거법은 복수후보에 대한 비밀투표를 허용하였으며 심지어는 복수정당제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식 대통령제의 도입 역시 지나치게 비대한 당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데 한 이유가 있다.

지면의 제약상 논의가 충분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기 바라면서 이 글은 우선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몇 개의 견해를 검토한 후, 페레스트로이카의 성패 가능성과 관련하여 몇몇 중요한 이슈들을 고찰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에 대신하여 페레스트로이카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II.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성격

1) 소련에서 진행중인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우 동구에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와는 달리 격심한 혼란속에서도 일련의 실험이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이다. 시간의 추이에 따른 전개 양상의 변화도 발견되어진다. 또한 관찰자의 이념에 따라 분석내용이 달라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페레스트로이카를 사회주의의 붕괴 혹은 자본주의로의 회귀라는 시각에서 파악하는 비교적 단순화된 논리가 존재한다. 아이러니할 한것은 이러한 시각이 강경한 마르크스주의자와 서구의 보수적인 반공주의자 양측 모두에 의해서 견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련내의 일부 보수세력과 몇개의 사회주의국가, 그리고 전통마르크스주의와 불세비즘의 전통에 대해 항수를 느끼는 서구사회의 경직된 좌파지식인이 바라보는 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주의원칙의 포기이며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배신행위로 파악된다. 이러한 입장에 의할 때 특히 공산당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일련의 조치와 시장경제의 도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 동일한 맥락에서 행해진 어느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고향인 독일에서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에 의해서 마르크스주의가 배신되고 오히려 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해 혁명의 순결성이 지켜졌던 것처럼, 지금 레닌의 고향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에 의해 마르크스 - 레닌주의가 배신되어지고 제3의 장소로 그 과제가 옮겨지고 있다.

정반대로 서구의 보수주의 진영이 파악하는 소련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동구사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한마디로 사회주의의 실패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장엄한 실패」의 저자 브래진스키는 책 제목이 암시하듯이 1917년 이후 불세비키체제의 등장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포함하여 최근의 동구공산주의체제의 파국을 20세기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큰 드라마였다고 말하고 있다.<sup>27)</sup>

위기의식속에서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한 체제의 변질에 저항하는 강경마르크스주의자의 시각이나 현금의 사태를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보는 서구보수주의 진영의 시각이나 사태의 진단에 있어서 사실상 동일하다. 다만 반응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편은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고 다른 한편은 승리감속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차이이다.

2) 가장 일반적인 사회주의 진영의 논리는 진정한 사회주의론 혹은 사회주의 강화론의 논리이다. 고르바초프 자신도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입장에서 서 있다. 이에 따르면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해 야기되는 일련의 변화는 왜곡된 사회주의 -스탈린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이념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는 과도기적인 사회주의의 위기에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의 토대를 강화시켜줄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의미는 스탈린주의 비판과 진정한 사회주의 이념으로서 레닌주의에로의 복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될 수 있다. 우선 스탈린주의 청산의 논리를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페레스트로이카가 추구하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커다란 장애물로서 당의 관료주의와 중앙통제경제의 폐해는 스탈린시대에 와서 성립된 왜곡된 사회주의의 산물이다.

스탈린의 권력자원으로서 당의 관료집단은 스탈린의 권력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계급으로 부상하여 모든 권리를 독점하고 인민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었다. 당의 의사는 선형적으로 무오류임이 주장되었고 토론과 비판의 자유가 사라졌다. 반대세력에 대한 조직적인 테러가 자행되고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가 박탈되었다.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이름으로 당의 독재가 행해졌고 이것은 지도자 일인의 독재로 귀착되었다. 스탈린의 독재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부집단에 대해서는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스탈린은 사라졌지만 이들 지배집단은 오늘날까지 존속하여 권위주의와 비능률,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브레즈네프세대는 스탈린체제의 살아있는 유산이 되었다. 고프바초프는 이들 보수적 아파라치키세력과 맞서 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복수후보제와 비밀투표를 도입하여 당의 체질을 혁신시키려하고 있다.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신장되어 이를 바탕으로 인민의 정치참여와 소비에트의 활성화가 시도되고 있다.

다른 한편 스탈린주의의 또하나 내용으로서 획일적인 중앙통제경제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진다. 1920년대 볼셰비키의 경제정책은 시장제도의 수용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유연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레닌의 결정에 의하여 신경제정책이 채택되었을 때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시장의 원리와 계획경제의 변증법적 통일을 모색하였다. 권력장악초기 스탈린은 조심스럽게 시장경제원리와 농업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신경제정책 추진세력에 동조하여 정적 트로츠키와의 권력투쟁에 이를 심분 이용하였다. 그러나 신경제정책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을 때 결국 그는 신경제정책의」 포기를 선언하고 극단적인 중앙통제경제정책을 채택하여 공업화 전략과 농업집단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1928년 소련은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였으며 이 후 중공업 우선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 스탈린 정권은 곡물인도를 거부하거나 집단농장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모든 농민들을 소비에트의 적으로 몰아 일종의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사실상의 현대판 노예제라 할 수 있는 수많은 강제수용소를 만들어 내었다. 사회주의경제의 원형으로서 스탈린의 중앙통제경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연적 성장의 한계를 노출시켰으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비능률과 관료주의, 생산성의 저하, 산업구조의 구조를 왜곡화를 초래하여 소련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도록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료주의 문화의 청산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서 경제정책의 일대전환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진정한 사회주의론은 레닌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특히 후기레닌의 사상을 강조한다. 고르바초프는 기업의 자율성과 노동의 인센티브를 크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전적으로 레닌의 전통에 입각해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진정한

로 레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년의 레닌의 사상을 보다 증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후기레닌주의에 대한 강조는 레닌의 신경제정책을 우선적으로 거론한다. 혁명후 제국주의의 압력과 내전의 상황속에서 시도된 전시공산주의는 대다수 국민의 불만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하였고 신생소비에트체제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크론슈타트수병의 반란이후 레닌은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였다. 혁명의 이상이 현실속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을 때 이념은 보다 온건해졌고 원칙의 문제는 대폭 완화되었다. 레닌은 1921년 농촌경제의 황폐화를 막기 위하여 부농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였으며 비마르크스적인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신경제정책의 도입에 따라 정치·사회·문화 등 여타 영역에서도 자유주의조치가 취해졌으며 이 시기 레닌은 체제정비를 위한 휴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급투쟁의 교리를 크게 후퇴시켰다. 또한 레닌은 당의 관료주의화 경향에 대해서 말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관건이 관료주의 극복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스탈린의 독선을 경계하였으며 스탈린이 서기국을 장악하여 자신의 개인적 지위를 구축하는 방식에 대해 경악하였다. 그의 유서는 스탈린보다 덜 위험한 인물이 자신의 지위를 계승해야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진정한 사회주의론은 페레스트로이카가 당내민주주의에 대한 레닌주의로의 완전한 복귀이며 당의 재건을 논하기 위하여 레닌의 최후의 저작들에 나오는 그의 이념과 사상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제3의 해석은 오늘의 소련사회가 겪는 변화를 동서체제의 상호수렴과정의 일부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수렴의 귀결점은 혼합체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페레스트로이카가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제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다름이 없으며 사회적 시장경제 역시 시장경제의 점진적 도입을 의미할 뿐이다. 세계사의 새로운 변화는 사회주의가 서구식 민주주의, 자본주의원리와 접목되어가는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그것에 어떠한 이름을 붙이느냐 하는 문제는 수사학의 문제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수렴론적 해석과 진정한 사회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수렴론은 사회주의체제의 이념적 중추역할을 서구적 의미의 사회민주주의 어느 한 지점으로 파악하는 반면 진정한 사회주의론은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정은 하지만 사회주의로부터의 어떠한 후퇴도 인정하지 않으려한다. 그것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는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주의'이다.

4)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본질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을 놓고 필자가 취하는 입장은 마지막 수렴론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주의 붕괴론은 아직으로서는 시기상조라

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볼셰비키혁명의 근원지로서 소련의 경우 동구사회주의국가와 상황이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번째의 진정한 사회주의론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사회주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스탈린체제의 결과로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고전적 사회주의 이론속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스탈린의 억압정치가 부분적으로 스탈린의 경제정책에 기인하고 있으며 계획경제를 볼셰비즘의 전통이라고 보았을 때 스탈린체제의 상당 부분은 스탈린개인의 과오라기 보다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상존하고 있는 위험이라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단일정당체제를 고집하고 대중에 대한 당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민주집중제의 원리를 통하여 권위주의적 당운영의 전통을 수립한 볼셰비키의 전통이야말로 스탈린 일인독재와 관료주의의 정치적 기초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사회주의론의 또 하나의 명제인 진정한 레닌주의로의 복귀 역시 후기의 레닌과 그의 정치현실주의를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레닌이론의 일면적 특징을 전제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레닌주의를 무원칙한 사상체제로 만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레닌은 결코 스탈린식의 관료독재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상은 다양성과, 관용,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며 그는 과도기적 체제로서 프롤레타리아 중앙집권주의를 강조하였고 당의 절대적 지위에 대하여 결코 신념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신경제정책을 통하여 잠정적 조치로서 시장경제의 부분적인 수용을 결정하였지만 레닌을 시장경제의 지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레닌을 포함한 초기 볼셰비키들의 계획경제에 대한 믿음은 확고한 것이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주장하는 혁신적 재구성엔 레닌의 이름을 빌어 사실상 레닌주의의 핵심원리를 파괴시켜 버리고 있다고 보여지며 우리 정부를 포함한 서방국가들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할 것이다.

진정한 레닌주의론이 또 다른 표현이 되고 있는 사회주의 강화론은 계획부문이 시장부문 보다 우위에 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리이다. 변화의 종착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오직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지만 필자는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것은 조만간 사회주의강화론이 설정하는 계획과 시장비율의 경계선을 통과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사회주의 발전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단계로 파악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과도기의 기간설정이 자의적이라는 점, 과도기가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허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 등 때문에 공감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진정한 사회주의의 논리가 아닌 사회주의 수정의 논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시킨 혼합체제로서 제3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았다.

### Ⅲ. 페레스트로이카의 성패전망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성격에 관한 논의와는 별개로 페레스트로이카가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존재차원의 문제를 검토해 보자.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본질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그것의 성패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시사적일 수 밖에 없으며 시간은 항상 사회과학자들을 망신시켜 왔다고 경제학자 갈브레이드가 이야기하였듯이 소련의 장래를 예측한다하는 것은 필자로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해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 세가지 — 경제개혁, 권력투쟁, 민족분규—를 선택하여 각 변수에 대한 사태의 대립적 경향만을 기술하려 한다.

#### 1. 경제개혁의 문제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소련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민생문제해결이며 페레스트로이카의 성패는 우선적으로 소련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련은 지난해 국민총생산이 89년 대비 2%줄었고 공업생산과 농업생산이 각각 1.2%와 2.3%, 대외교역은 6.9% 감소하였으며 1백억 루블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소련 정부는 올해 국민소득의 15~20% 저하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지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만성적인 식량, 생필품부족과 이에 따른 매점, 매석행위, 물가인상조치에 따른 고인플레이션상, 관료들의 부패, 사경제에 편승하여 돈을 번 사람들과 일반시민의 위화감, 고르바초프 정부가 추진해 온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실망등이 위험수위에 와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불만은 각종 시위와 파업의 형태로 폭발되고 있다. 경제사정이 악화됨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쳐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이것이 소련사회의 결속을 해치고 있다. 소련경제의 근경은 금년에 들어 위기상황이라고 까지 일컬어지게 되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악화되고 있는 소련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정치적 파업의 중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소련 최고회의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 92년 10

월 1일까지 자유시장가격체제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금년 2·4분기중 민영화계획에 의거 적자경영회사를 민영화시키며 책임경영진을 해고하고, 금년중 국가대의 무역기구의 독점체제를 종식시키고 대외업무를 분산시킨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련정부는 금년 3월 시장경제로의 첫단계 조치로 가격개혁을 단행하였다.

소련은 지금까지 소매물가 산정을 생산비용과 관계없이 정책목표에 의해 결정해 왔으며 정부는 소비재의 소매가격을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생산자의 손실을 국가예산에서 지출되는 보조금으로 보전해 왔다. 새로운 조치는 소매가를 생산원가에 접근시킴으로서 기존가격체제하에서 야기되었던 생산의욕의 저하와 생산의 감소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소련정부는 이번의 가격개혁조치로 인한 물가인상과 국민의 부담을, 가격인상에 따른 추가수입의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출증대로서 경감시키려 하고 있다.

소련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반된 평가가 행해지고 있다. 낙관적 시각은 현재의 소련경제를 중독상태가 장기화되었던 환자의 치유에 비유한다. 환자가 정상으로 되찾기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재반위기는 죽어가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치유과정에서 나타나는 증후로 보아야 한다. 현위기는 심각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견해는 무엇보다도 소련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금과 외화보유, 높은 교육수준과 훈련이 잘된 노동력, 고급기술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것은 소련의 관료제급이 경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말은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며, 가령 최근에 실시된 가격개혁조치는 소련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예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이루어진 가격개혁 조치가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하달된 가격이라는 사실은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의식의 전환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비관적 시각은 페레스트로이카 6년의 성과가 무엇인가 의문을 제기한다. 참울성을 갖고 기다려온 소련국민의 기대는 무산되고 있다. 혼란과 분열, 이기주의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물가인상조치는 품목에 따라서 몇 백%, 생필품의 경우 60% 가격인상을 초래하여 보상조치에도 불가하고 일반시민들은 고통스러운 충격을 받아야만 하게 되었다. 특히 보수세력들은 급격한 시장경제의 채택이 산업생산의 감소와 대량실업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생필품공급이 여전히 순조롭지 않을 때 그리고 가격인상으로 생활수준이 더욱 낮아짐을 의식하게 될 근로의욕은 감퇴할 것이고 억눌려왔던 불만이 더욱 증폭되어 폭발될 가능성이 있다.

## 2. 권력투쟁의 문제



페레스트로이카의 성패는 고르바초프 개인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또한 거대한 사회개혁의 물결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와 혁신 양대 정치세력간의 권력투쟁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페레스트로이카를 거부하는 군, 당료, 보안기구 등 보수세력과 보다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엘친지도하의 급진세력사이에서 고르바초프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사려깊은 균형자의 역할을 필사적으로 행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지난 10개월간 보수파와의 타협으로 구축된 기반위에서 최근 엘친을 비롯한 급진개혁파를 포용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과우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르바초프에 대한 보다 심각한 위협은 보수파로부터의 도전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여론에 호소하는 급진파들의 공세와는 달리 이들이 군부와 공산당, 국가보안위원회 등 막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소련의 행정력과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이들의 도전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반대하는 보다 근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소련인민대표대회내의 대표적인 강경보수파 단체인 소유즈그룹(빅토르알크스니스라는 40대 현역공군 대령이 지도자중의 한사람인 300여명 규모의 그룹)은 현 위기의 수습을 위한 국가비상사태선포를 촉구하고 고르바초프 재임중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특별회의 소집을 요구한바 있다. 대체적으로 소련 파우어 엘리트 그룹의 다수를 이룰 보수파가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안보회의(KGB) 의장인 보수파의 블라디미르 크류츠코프가 고르바초프를 대신할 제2인자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파에 의한 과거 후루시초프축출식의 궁정반란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서기장선출이 당중앙위원회가 아닌 당대회 전체 대의원들 직접비밀투표, 복수경선제에 의하게 되어 있고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정분리정책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당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됨으로써 보수파의 고르바초프에 대한 도전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 은 이번 28차 당대회결과 고르바초프의 서기장 연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급진파의 도전은 위로부터의 혁명의 연장으로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광원들의 대규모파업과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자들의 구호처럼 이들은 점차 고르바초프 퇴진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됨으로서 강경파의 득세가 상대적으로 개혁주의진영에 재난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엘친이 이끄는 급진개혁파는 고르바초프와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급진파 지도자 엘친은 기본적으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과의 일단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더욱 급진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이므로 보수파의 경우와는 달리 페레스트로이카의 기본방향에 커다란 시각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혼란

과 무정부상태가 결과적으로 보수파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퇴진이 그들에게 더 악화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현실 인식속에서 극단적인 파국상황을 연출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또한 고르바초프의 라이벌로서 엘친의 대중적 인기가 얼마나 지속될것인지, 혹은 실제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도자로서 그의 실제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미지수이다. 최근의 몇몇 사태를 통해 보여준 엘친과 고르바초프의 힘겨루기는 대체적으로 두승부였다고 외신은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보리스 엘친과 고르바초프는 공동선언을 통하여 신 연방조약체결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할 것과 소련대통령의 직선제에 합의함으로써 고르바초프와 급진세력간의 충돌로 빚어진 소련의 정치위기는 호전의 기미를 보여주었다.

보수 개혁을 불문하고 고르바초프를 대체할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두 세력간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조정자로서 그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조기퇴진 내지 실권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위치는 당분간은 안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상황이 계속되어질 때 그의 정치적 장래는 점차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고르바초프의 퇴진은 이외로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관측의 예로서, 최근 미국의 채니국방장관을 비롯한 서방관측자들의 발언은 극적인 변화를 성취하지 못할 경우 고르바초프가 올해안에 실각할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다. 소련과의 협상에 임하는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유보적 태도도 이와 무관치 않다할 것이다.

### 3. 민족문제

오늘의 소련을 위기로 몰아놓고 페레스트로이카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변수로 민족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130여 민족과 15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발트3국을 비롯한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몰다비아 등 소수민족국가들이 잇달아 주권선언과 탈소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소련은 연방해체의 위기를 거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소련은 금년 5·17일 연방존속여부를 놓고 최초의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고르바초프는 집권이후 최대의 시련을 맞게 되었다.

1990년 12월 소련정부는 발트3국을 포함한 주요민족분규지역에 대해서 비상사태선포를 실시할 것을 경고하고 향후 비러시아계 민족들의 민족분규 및 탈소 독립운동에 대한 연방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1991년 1월 중순 소련정부는 분리주의 운동이 격화되고 있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공화국에 정부군을 투입하여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발트3국의 탈소 분리주의 움직임에 쐬기를 박으려는 정부내

보수세력과 소련 군부의 강공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와 인종, 언어, 문화적 전통을 달리하는 이들 민족은 18세기에 러시아에 복속된 이래 한때 독립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1939년 독일과 소련의 비밀협정에 의해 다시 소련 연방에 편입된 후 자치독립의 요구가 한 동안 묵살되었다. 그러나 1985년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비러시아계 민족운동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된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는 그 동안 억눌려 왔던 소수 민족의 폭발적인 욕구분출을 야기시켜 이들 국가들은 민족자치권의 확대의 차원을 넘어 탈소 분리독립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국가는 새로운 공화국헌법을 채택하여 독립된 주권국가임을 선포하였고 연방정부는 이를 즉각 무효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를 따라 여타의 공화국들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을 때 고르바초프는 무력진압에 뒤이어 마지막 카드로서 연방제도 존속여부를 놓고 고르바초프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띤 국민투표를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금년 3월 17일 연방제도의 존속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6개공화국의 국민투표거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여 소련은 위기를 일단 모면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본래 제안에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예를들어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라는 용어대신 주권공화국동맹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러시아공화국의 경우 독자적으로 대통령직선제 도입의 실문을 추가하여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 3·17일 국민투표에 의해 채택된 새연방조약안은 각 공화국의 연방으로부터 「탈퇴를 형식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수많은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탈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각 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면서도 주요권한을 연방에 이양시키고 있는 조항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발트3국외에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몰다비아공화국이 계속 거부의를사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9개 공화국 지도자들은 내정불간섭조항을 추가하고 중앙집권체제를 상당히 불식시킨 체제를 새로운 연방제의 형태로서 설정하여 합의를 모색중이다.

연방정부의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화국의 분리독립의 움직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아직으로서는 소련의 민족분규에 묘안이 없는 상태이며 소련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서구여론의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드높다. 미국은 이들 발트연안 국가가 40년대 소련에 합병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법률상 독립국가로 인정하여 공사관계를 유지해 왔다. 소련과 마찬가지로 다민족연방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에는 연방해체나 느슨한 주권공화국의 연합이나라고 하는 비슷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민족문제를 둘러싼 소련의 내분을 살펴보면 연방주의와 분리주의가 보수와 진보의 구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수파가 문제해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급진개혁파를 대변하는 스타니슬라프 샤탈린 전대통령 경제고문도

공개서한을 통해 분리주의와 연방의 해체를 가속화하게 될 국민투표의 뜻을 경고했으며 공산당이나 비밀경찰의 중앙권력파괴를 우려하는 소유즈그룹은 더욱 강경한 입장에서 소련의 존속여부가 달려있는 중대사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자체가 잘못된 결정임을 주장하고 고르바초프가 자신의 정치적 도박으로 이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보수세력은 소수민족의 분리주의운동이 궁극적으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따른 사회기강의 이완현상이라 보고 고르바초프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민족분규의 악화는 특히 보수파의 입지 강화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소수민족의 분리주의가 연방해체의 위기를 야기시킬 경우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보수파의 공세가 가속화될 것이며 그 여파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휘청거리게 될 것이다.

#### IV. 페레스트로이카와 남북관계

1985년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지도자로 등장한 이후 소련은 신사고의교정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왔으며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외교노선은 각종지역분쟁과 군축문제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고르바초프는 불세비키의 오랜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세력과의 전쟁불가피론을 거부하고 인류의 생존, 인간의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사고를 강조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체제의 상호협력과 공존을 주장하였다. 신데탕트의 절정을 이룬 89년 12월 몰타에서 이루어진 미소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동유럽이 자신의 장래를 선택함에 있어서 소련이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동유럽국가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하였다. 특히 분단독일의 통일은 몰타회담의 직접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문제에 임하는 소련의 신사고를 기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소련은 한반도문제가 동북아시아 긴장완화의 관건이 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가 동아시아 안정의 필요조건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또한 시베리아 개발을 위시로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시급한 한국의 기술과 자본의 요청은 소련의 입장을 분명히 만들고 있다.

이러한 소련의 변화는 북한의 소련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의존도를 고려할 때 단기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결국 소련의 정책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소련이 북한에 대하여 에너지와 석유 그리고 첨단 무기의 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북한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소련의 사회주의 국가내에서의 영향력 약화와 최근에 표방하고 있는 내정불간섭의 원칙, 그리고 주체사상을 통하여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상대적 자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과거와 같은 직접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한편 북한은 한소관계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종래의 적대적인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북한내부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방측의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한소관계 정상화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서방세계와 타협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소련은 한소관계의 정상화를 통하여 그 파급효과로서 미국과 북한의 상호접근과 북한의 개방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심분 이해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교차 승인을 거부하는 제한적인 입장속에서 미·일의 대북한 접근을 수용하고 있다. 한소관계의 급진전은 북한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 이에 따른 경제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소련의 정책전환은 북한으로 하여금 단기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방과 개혁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며 북한은 결국 교차승인을 받아들이고 남한과의 직접적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군축과 경제협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방향전환에 있어서 초래될 정체성의 위기를 예상할 때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김일성의 카리스마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낙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의 북방외교는 지나친 북한의 고립화를 유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에 대한 위기를 느끼게 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것 보다 개방과 협력이 남북한 양측에 상호 이익임을 설득시켜 북한을 국제무대로 나오게 하는 대승적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북방정책이 북한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켜 힘에 의한 승리를 기도한다면 이것은 북한의 자기방어 본능을 오히려 자극시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한반도 문제의 지나친 국제형화에 관련된 문제이다. 미소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동북아시아의 신데탕트를 고찰해 볼 때 미국과 소련의 협력체제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경제위기와 소수민족문제로 곤경에 처해있는 소련이나 독일의 통일과 더불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서재편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미국은 현재로서 자국의 기존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문제의 경우 그들이 바라는 것은 통일이 아닌 남북의 평화공존이며 현상의 타개가 아닌 현상유지이다. 평화공존이 통일의 선행조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적극적인 통일의지를 결여한 그 자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더구나 미소의 기득권수호를 전제로 하는 현상유지의 전략은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역사의 필연이라고 하나 그 가시적 성과가 단시일내에 나타나지 않을 때 고르바초프정권에 대한 비판과 도전은 더욱 거세어 질 것이며 보수파가 득세하는 경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냉전의 논리가 다시 등장할 것이며 그 여파로 남북관계 역시 상당기간 냉각기를 맞게 될 것이다.